

소셜 미디어 시대를 준비하는 대학의 교양 교과목 개발

Education development on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preparing for the social media era

황 의 철
광주여자대학교

Hwang eui-chul
Kwangju Women's University

요약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 지난 20년 사회 전반의 변화는 심오했다. 앞으로 20년 후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지수 함수적으로 성장하는 정보통신기술의 파워가 2030~2045년에 인간의 지능을 초월할 거라고 한다. 국내 대학들의 비전과 목표설정 등에 따른 교양교과목의 개발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한다. 스마트 사회에 대학 교양교육이 지향해야 할 '창조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능력', 창의적 리더를 키울 수 있는 융합 교양교과목 개발 및 운영이 필수적이다.

I. 서론

1. 미래의 부(富)는 시간, 공간, 지식

금세기 최고의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부의 미래(Revolutionary Wealth)」에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였다. 토플러는 “미래의 부는 시간, 공간, 지식이라는 세 가지 심층기반(deep fundamental)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첫째 기반은 ‘시간’이다. 토플러는 시간을 고속도로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 빗대어 말했다. 여기서 자동차의 속도는 ‘변화의 속도’를 의미한다. ‘기업’은 시속 160km로 가장 빨리 달리는 자동차, ‘가족’은 95km, ‘노동조합’은 50km, ‘정부관료 조직’은 40km, ‘학교’는 15km, ‘국제기구’는 8km, ‘정치조직’은 5km, ‘법’은 1.5km 순이라고 한다.

변화의 속도가 급변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에 ‘학교’는 시속 15km에서 자동차의 경제속도인 80km를 맞추는 일, 즉 동시화(synchronization)가 되어야 한다.

둘째 기반은 ‘공간’이고, 셋째 기반은 ‘지식’이다.

토플러는 ‘미래에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¹⁾.

2. 소셜 미디어의 출현과 창의력 융합의 시대

역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를 매개로 하는 새로운 제국이 탄생하고 있다. 페이스북(facebook)이 검색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의 이목이 구글과의 정면승부에 쏠리고 있다.

현재 전 세계 페이스북 가입자는 10억 명을 넘었고 등록된 사진은 2,400억 건, 연관 게시물은 1조건에 달한다. 구글과 달리 결과를 직접 안내하며, 정확도·편의성 크게 개선되었으며, 사생활 침해 해결이 관건이다. 구글 이용자는 20억 명에 달한다(서울경제, 2013.1.16).

소셜 미디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 수, 이용시

간, 유통되는 메시지 양,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비중, 사회·경제·문화적 영향력, 산업력, 성장 가능성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약진을 이루었다.

인터넷 이용자의 75%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고, 전 연령대로 이용자의 폭이 급격히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스, CNN, Google 등 세계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트위터를 도입하는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활용측면에서도 소셜 미디어는 단순한 유대관계 매체를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활동을 매개하는 미디어로 각광받고 있다²⁾.

II.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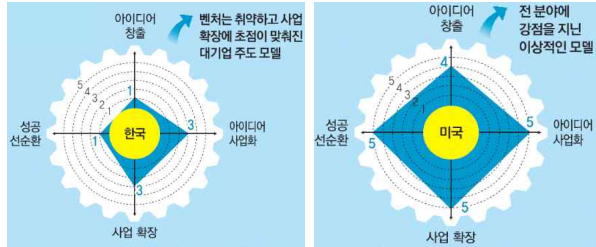
1. 소셜 미디어와 새로운 패러다임 소셜 러닝

소셜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일상생활 및 습관과 가치관 등이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생활은 사회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소셜 미디어 교육 분야에서도 미디어를 중심을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을 위한 내용 및 방법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은 커뮤니케이션이며,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교육환경, 교육자원, 교수자 및 학습자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해야 한다.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미디어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리고 미디어 환경에서 교육·인간·미디어의 창조적인 관계는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교육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때마다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들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표현이 자주 오르내린다. 소셜 네트워크는 기술 위주가 아닌 인간중심의 기술사회를 가능하게 한다. 이 세대들은 강의실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교재의 내용을

교수의 강의로 일방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학생들이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적응을 위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 그림 1. 한국·미국의 창조경제 모델

<출처 : 동아일보, 2013.4.15>

한국은 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는 아이디어 창출단계에서 OECD 34개국, 중국 등 35개국 평가에서 31위, 아이디어 사업화 19위, 사업 확장 14위, 성공 선순환 28위로 한국 창조경제 순위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 됐다. 주입식 교육의 영향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이 최 하위권에 그친 탓이다.

‘창조경제 다이아몬드’는 각 단계가 위축되어 있지만 그나마 사업 확장과 아이디어 사업화가 양호한 ‘대기업형’으로 볼 수 있다(동아일보, 2013.4.15).

국내대학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A와 B를 섞어 ‘혼합물’을 형성하는 과정이라면, 미국 대학은 A와 B가 화학작용을 일으켜 전혀 새로운 특성을 가진 C라는 ‘화합물’을 만드는 것이다. 다양한 학문의 융합을 통해 전혀 다른 분야에서 창의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중앙일보, 2013.2.20).

소셜 러닝의 기본원리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람간의 지식과 정보 공유, 의견 교환 등을 통해 개인의 인지와 행동에 변화, 즉 학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소셜 러닝이 소통·감성·개방성·창의성을 중요시 하는 미래 교육 가치와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창의성과 문제 해결능력, 신속한 협업 등은 미래사회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핵심가치이다.

2. 대학의 교양교과목 운영 현황

학생들의 인성함양과 자기개발에 필요한 교양교과목의 개발과 학문수요와 시대조류에 걸 맞는 교양교과목을 공모를 통하여 개설 및 운영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K대학은 교과목의 차별성과 참신성을 통하여 현대사회의 첨단기술과 다문화, 글로벌화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교과목 개설, C대학에서는 ‘문화초대석’, E대학에서는 핵심교양영역 5개, 핵심교양역량 5개 교과목, SO 대학에서는 교양필수과목으로 한글·영어 글쓰기와 읽기, 토론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표 1. 국내 주요 대학의 교양교과목 개설 현황

대학교	개설 교양교과목	중점사항
Kw	참사랑 대특강, 인간과 인성, 예술속의 인간학, 더불어 살아가는 법, 신뢰와 감성 리더십, 스마트사회와 소셜 미디어, 부의 미래	품격여성 인재육성 (참,미래, 멋,격조인)

Ko	소셜 미디어와 소통, 블루오션과 창업 트렌드, 소통수사학, 프론티어 창업 솔루션, 법과 리걸마인드	학제간 융복합 소양인성
S	사고와 표현, 영어회화와 독해, 현대사회의 삶과 윤리, 수학과 문명, 어떻게 살 것인가, 컴퓨터와 정보사회	인성,글로벌, CEO 특강
K	정보화와 미래사회, 인터넷탐구, 21C환경문제 이해, 위기의 지구, 차 과학과 문화, 인간지능과 인공지능	사고와 표현, 영어
S	한국인의 삶과 문화, 삶의 혁명, 물의 위기, 정보사회와 사이버윤리, 과학의 철학적 이해, 컴퓨터와 마음	창의적 인재육성
KY	우리가 사는 세계, 다이내믹 근현대사, 리더십과 사회적 책임세계정치와 문명, 글쓰기, 교양소통클리닉	더 나은 인간·세계
H	사회봉사, 새내기세미나, 가치리더, 글로벌 리더십, 비즈니스리더십, 셀프리더십, 말과 글, 과학기술의 철학적이해	사랑의 실천
E	문학과 언어, 표현과 예술, 역사와 철학, 인간과 사회, 과학과 기술, 인문적 통찰 역량, 과학·생태적 사고역량, 심미적 창조역량, 글로벌 선도역량	핵심교양 영역,핵심 교양역량
SO	글쓰기와 읽기, 발표와 토론, 역량개발 1,2, 영어쓰기와 읽기, 영어토론과 발표, 인문학독서 토론	한글·영어 글쓰기와 읽기,토론

III. 결론

Ko대학과 H대학이 교양강좌를 신설하며 변화에 앞장섰다. Ko대학은 전체교수들을 대상으로 교과목 공모를 통한 교양을 직접 학생들의 교양 수업 수업을 검토하여 교과목을 신청했다. H대학은 통섭성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제간 융·복합 교육 강좌’를 개설했다. 학생들이 전공을 초월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만큼 향후 융·복합 시대의 인재가 필요한 사회의 요구라 한다.

국내 대학은 교양교육의 정상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대학 제정의 구조적 문제점, 의사결정구조, 대학 서열 구조 등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든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대학 간 교육프로그램의 교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대학별 교양기초교육 수준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학별 교양기초교육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교양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실천이 지속되어야 하며, 융·복합 교양교육과 같이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 [1] 엘빈 토플러·하이디 토플러, 엘빈 토플러 청소년 부의 미래, p18, pp.26-27, pp37-45, 청림출판, 서울, 2007.
- [2] 한국방송학회 방송과 수용자 연구회 엮음, 소셜 미디어 연구, pp45, pp280-281,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울, 2012.
- [3] 강인혜, “스마트 러닝을 통한 교양기초교육 콘텐츠 확산 방안”, 경희대학교, 2012.
- [4] ‘한국 창조경제의 현주소’, 동아일보, 2013.4.15.
- [5] ‘미국 리더 키우는 융합 교육의 힘’, 중앙일보, 2013.2.20.